“인과가 역연하니 참선공부 잘해라”

혜암 스님 열반21주기 추모다례재
문도, 기초수행기금 천만 원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12월 10일 해인사에서 열린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분향 헌다하고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스님의 평생 법문이 다시 들려온다.

해인사(주지 현응)가 12월 10일 조계종 10대 종정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2001년 12월 31일 아침, 혜암 스님은 여느 때처럼 미소굴에서 의자에 앉아있었다. 의자에 몸을 기댄 평소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2002년 1월 6일 해인사에서 치러진 영결식에서 5만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스님은 늘 “공부만이 살길이다”고 대중에 일렀다. 스님이 항상 대중에 말한 것은 마음을 찾는 공부만이 살길이라는 것이었다. 평생을 장좌불와와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후학들과 함께 용맹정진했다. 대중은 그런 스님을 두타수행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입적하기 전까지 신도들과 선방에 앉아 정진한 스님의 모습을 보며 정진불이라고도 불렀다. 스님은 일흔 살까지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한 산중의 방장으로 있던 칠십대 중반일 때도 빠지지 않고 정진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맞는 일이라며 죽는 날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인사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낸 스님은 늘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길을 설했다. 스님은 늘 수좌들에게 목숨 걸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추모 다례재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대중스님, 신도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재에 앞서 문도스님과 대중스님, 제가불자들은 혜암 대종사 부도전을 참배했다. 참석 대중들은 죽비에 맞춰 삼배를 올린 후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석가모니불정근을 하며 부도탑돌이를 했다.

노전 유초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방장 원각 스님의 분향, 헌다에 이어 문도대표 성법, 무영, 무상, 여연 스님의 분향, 헌다에 이어 종사영반, 무모입정, 육성법어 청취, 세민 스님, 무관 스님, 현응 스님의 헌화, 대중스님 헌화,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공지사항, 회향게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대표 성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인욕정진하라, 자비를 실천하라’는 혜암 대종사 의 수행정신을 이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며 “스님의 21주기 추모법회를 맞이하여 참석하신 대중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2001년 부처님오신날 법어를 낭독했다. 이날 혜암당 성관 대종사 문도회에서는 해인사 기초수행기금으로 1000만 원을 해인사에 전달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하여 수계득도하고, ‘성관’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 자운 · 우봉 · 보문 · 도우 · 법전 ·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음력 11월 17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공부 잘해라”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세수 82세이며 법랍 56세이다.

울산 벽선암, 동지 팥죽나누기

새해 행복 · 소원성취 발원하고
문화공연 · 동지팥죽 · 달력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야단법석 제10회 전통놀이문화와 함께하는 동지 팥죽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1일 울산 호계역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복과 소원을 발원하며 지역민에게 팥죽을 전달했다.

사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악과 한국무용, 연 만들기, 새알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졌고, 벽선암 신도들은 3000명 분의 동지팥죽과 새해달력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벽선암 혜진 스님, 야단법석 김은아 대표, 박천동 울산시 북구청장 및 임직원, 전순남 신도회장, 김기원 대외협력단장, 김영란 운영위원, 조희경 북구여성자원봉사회, 란 국악원, 농소2동 적십자회, 한국 춤 사랑회 농이 예술단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벽선암 혜진 스님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의 계획들을 되돌아보고 감사와 희망, 정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욱 한마음으로 다짐하고 두루 건강하고 희망의 새해 계묘년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야단법석 김은아 대표는 “자비의 향기로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물들이고자 진행하는 팥죽나누기 행사가 10회째를 맞았다”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액운은 물리고 이웃들의 안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2023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길” 서원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벽선암이 준비한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팥죽을 먹고 가정과 직장 어디에나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북구자원여성봉사회 조희경 회장은 “작은 힘이나마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바람으로 동지팥죽 나눔에도 동참하게 됐다” 며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들이 새해에는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개최

임원 · 재학생 · 동문 등 참석
전법 · 봉사대상 임태빈 이기석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12월 10일 전북불교대학 4층 대법당에서 ‘불기2566년 임인년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태기준 전북불교대학전법사 회장, 조강숙 자원봉사단장, 재학생과 동문 학인 등 12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1부 송년법회와 2부 만찬 및 축하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사과 윤수현 학인이 낭독한 발원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치신 영가께서 생전에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 연화대에 왕생하여 정각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지금의 역경을 이겨내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사찰의 도움을 받는 불교대학들도 어려워하는 가운데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학사를 청소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있어 전북불교대학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 김인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불교대학이 수업을 중단하고, 휴교하거나 폐교하며 힘들어하는데도 전북불교대학은 동문 여러분의 원력과 희생으로 굳건하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다”며 “전북불교대학의 미래를 위해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임을 알고 불교대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구 학장은 송년사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 ‘회향’을 낭독하며 “부처가 위대한 건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고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회향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세상을 바꾼 부처님처럼 학인 여러분의 멋진 연꽃을 보여주는 학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인년 한 해 전북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전법에 앞장선 학인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전법대상은 임태빈(22기) 학인과 한초숙(24기) 학인이 수상했고, 봉사대상은 이기석(29기) 학인과 이영산(31기) 학인이 수상했다. 개교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5년째 전북불교대학에서 활동 중인 1기 김명심 학인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가 시상한 자랑스런동문상은 김재선(32기), 신용훈(17기) 학인이 수상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이자 비불자의 포교요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전북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35년간 시민강연회, 인문학 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초청법회, 보살계, 산사수련회, 철학과 문화가 있는 문화재답사 등의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송년행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자 · 후원자를 위한 송년행사 및 향상음악회’를 개최했다.

12월 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년음악회는 야간보호사업 반딧불학교 아동의 우크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장 전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향상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애써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시상에서는 동백꽃예술봉사단 권계순, 선배시민봉사단 송순희, 나누면봉사단 황선호 외 10명, 신용정수산 정선희, 형제농장 김동남 대표 등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2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Happy 클래식 음악교실 ‘향상음악회’에서는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플룻, 바이올린 등 합주실력을 선보였다.

대원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첫 졸업식 개최

첫 졸업생 43명 배출



화엄사의 광주 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지난 12월 12일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졸업식을 갖고 4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불교 공부의 첫 해이자, 첫 졸업을 맞은 사찰과 학생들의 남다른 졸업식에는 학장 연성 스님을 비롯해 전병호 신도회장, 이동배 정광고등학교장, 서재현 졸업생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대학 첫 졸업식을 갖는 날이어서 행복하다. 오늘 졸업식은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 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삶이 조금 더 행복으로 가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한 길이기를 소원한다”고 격려했다.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은 광주지역 불자를 위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3월 6일 개교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위해 진리탐구, 자비실천, 정토구현의 학훈으로 50명의 첫 신입생을 맞아 불교입문, 불교교리, 천수경, 반야심경, 특강, 찬불가 교육, 템플스테이를 2학기에 걸쳐 32강좌를 진행했다.

1기 졸업생을 대표한 서재현 불자는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의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고 특별강좌 개최



스님의 특별한 공부비법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강연이 열렸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는 12월 12일 룸비니강당에서 〈공부하는 힘〉 저자 황농문 교수(서울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정광학원 이사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이 황농문 교수의 책 1200권을 학생들에게 기부하면서 진행됐다. 몰입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황농문 교수는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몰입학습법을 제시한 책 〈공부하는 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맞춘,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공부’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강연에 나선 황농문 교수는 이날 저서에 실린 몰입과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1시간 30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독거 어르신 10세대에 보일러 등 지원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11월부터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겨울철 난방을 위한 난방시설 및 난방물품지원사업을 총 90가구에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환경으로 겨울철 한파가 염려되는 위기 및 독거 어르신 10세대의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했다.

저소득 어르신 80세대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이불, 토퍼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120만 원 상당의 난방유 지원과 후원업체 사임당푸드(영)의 후원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인절미 선물세트 100박스를 함께 전달했다.

보일러 교체 지원을 받은 성내면의 한 어르신은 “보일러 설치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한겨울에 힘들었는데 새 보일러로 교체해 주셔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원 스님은 “찾아가는 복지, 그리고 맞춤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한시적인 복지가 아닌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특히 위기 및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돌봄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누우리, 해외 교육환경사업 봉사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교육환경사업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나누우리는 캄보디아 쁘레이롬초등학교와 삼부어초등학교를 방문해 식수정화시설 건립 준공식을 개최하고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구호활동은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ODA)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으며 지원금 2500만 원과 (사)나누우리에서 마련한 성금 5500만 원, 총 8000만 원 상당의 구호활동 자금을 투자했다. (사)나누우리는 이번 구호활동에서 초등학교에 식수정수시설을 설치했으며, 선풍기 80대, 칠판 20개, 우산 120개, 백미 100포, 슬리퍼 100켤레, 구충제 1000정, 학용품, 체육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사장 만우 스님은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 희망과 꿈을 이뤄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일화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구호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동안거 결계포살법회 · 교구종회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12월 13일 경내화엄문화템플에서 동안거 결계 포살법회와 제7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살법회에는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본 · 말사 스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펴낸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안거를 점검했다.

포살법회에 이어 진행된 제74차 교구종회에서는 △2023년 교구 예산안 심의의 건 △인도 성지순례의 건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해 확정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